

송순문학상 대상에 김옥애 동화작가 선정

수상작 '추성관에서' 상금 2000만원...의병 이야기 형상화
김현주·안오일 작가 우수상...22일 담양문예회관에서 시상식

제6회 담양 송순문학상 대상에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김옥애 동화작가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추성관에서'이며 상금 2000만원.

우수상 역시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인 자 광일문학상 수상작가인 김현주 소설가 '연계정 대숲소리'가 결정됐다. 또 다른 우수상은 안오일 동화작가의 동시 '꿈짜마 소도독'이 선정됐다. 우수작에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담양군 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최근 후보작 심사회를 열고 제6회 송순문학상으로 김옥애 동화작가의 동화 '추성관에서'를 수상작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운영하는 송순문학상은 명양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한국 문학 발전과 담양만의 특색 있는 문학상 정착과 향후 문화 콘텐츠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됐다. 이번 제6회 송순문학상 대상에 선정된 김옥애 동화작가는 "1970년 스물다섯 나이에 담양 금성초등학교에서 일 년 넘게 근무했고 이듬해는 담양 동 초등학교로 발령받아 교직생활을 했다"며 "지금의 담양 동 초등학교의 강당 현판이 '추성관'인데 그 이름을 본 순간 역사적 유래를 모티브로 작품을 써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심을 통과해 본심에 오른 작품은 시, 시조, 동시 등 시부에서 16편이었다. 산문부에서는 장편소설, 장편동화, 단편소설, 수필 등 모두 8편이었다. 본심 심사위원들은 이들 24편을 대상으로 최근 담양군청에서 최종심을 갖고 대상 1편, 우수작 2편을 각각 결정했다.

문순태·이미란 소설가, 고재중·나희덕시인 등 심사위원들은 "추성관에서"는 담양



김옥애 작가 김현주 작가 안오일 작가

창평의 추성관을 배경으로 민중들이 의병에 가담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의병의 이야기를 영웅의 관점이 아닌 민중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점과 남은 사람들의 정성과 성장이 교훈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담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식전행사로 퓨전국악, 수상작 낭송 등이 펼쳐지며 담양문인협회와 담양서예협회 등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이 함께 하는 문화의 장으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1-380-280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12월의 첫째주 휴일인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은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겼다. 벚꽃이 만발한 봄철에 달맞이길을 다녀간 이라면 상상하기 힘들 만큼 앙상한 나뭇가지와 발 밑에 수북이 쌓인 낙엽들이 쓸쓸함을 더했다. 하지만 웬걸, 목재데크 산책로가 길게 늘어져 있는 언덕에 오르자 하나 둘씩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얼핏 등산객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에서부터 연인, 자전거족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해운대 해수욕장 끝자락 미포에서 송정해수욕장 입구까지 이어진 7.8km의 산책로를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명이 나란히 걸기에는 비좁은 게 흠이지만 오른

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해변의 갤러리' 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였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갤러리들이 그녀의 아이디어에 뜻을 보태면서 지난달 까지 매년 50여 명이 참가하는 상황을 이루고 있다.

갤러리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탄생한 갤러리투어는 이제 부산을 상징하는 아트관광으로 자리잡았다. 봄, 가을 시즌 한달에 두번(격주 토요일) 진행되는 갤러리 투어는 울산, 창원 등 외지에서도 일부러 찾아 올 정도다. 매회 미술평론가나 작가들이 해설사 겸 가이드를 맡아 각 갤러리의 전시회를 소개하고 미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강좌도 함께 운영한다. 1년

달맞이 갤러리 투어를 아세요?

편 숲 너머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감상하며 걷다 보면 온갖 시름이 저만치 달아난다.

사실 '달맞이 산책의 행복'은 왼쪽 도로에 자리하고 있는 갤러리와 카페촌이다. 일명 '부산의 몽마르트'로 불리는 이곳에는 10여 개에 이르는 갤러리가 몰려 있다. 국내 '빅 3' 가운데 하나인 조현화관에서부터 조이갤러리, 맥화랑, 김재선 갤러리, 해운대아트센터, 마린갤러리, 갤러리어름, 해운대갤러리, 메르세데스 비스까지 연중 독특한 기획전과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불러 모은다.

물론 처음부터 달맞이 갤러리촌이 유명했던 건 아니다. 5년 전 해운대의 자연 풍광과 아름다운 예술공간을 엮은 '갤러리 투어'가 첫선을 보이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갤러리투어를 기획한 이는 달맞이길의 터줏대감인 최영미 대표(조이갤러리). 다른 지

전부터 갤러리투어에 참여했던 30대 주부는 그림에 '눈을 뜨면서' 매일 적금을 부어 부산아트페어에서 작품을 구입하기도 했다고 한다. 갤러리 120여 개를 거느린 부산의 저력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갤러리투어가 5년 간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해운대구의 공도 빼놓을 수 없다. 달맞이 지역을 명품문화길로 가꾸고 싶었던 해운대구는 갤러리투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운영비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실제로 3년 전부터 구청은 부산시투어 코스에 갤러리촌을 포함시키는 등 대대적인 홍보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달맞이 언덕을 내려오는 길, 문득 광주의 갤러리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언제쯤이면 예술의거리, 윤림동 미술관·갤러리 벨트도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런지.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담양 동 초등 자리가 옛 ‘추성관’ 터라는 사실서 모티브 얻어”

담양 송순문학상 대상 김옥애 동화작가 인터뷰

담양문학하면 바로 송순을 떠올릴 만큼 담양은 예로부터 문학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던 곳이다. 이번에 송순문학상 대상 수상하게 된 김옥애 동화작가는 “담양은 내 아이들의 고향이자 젊은 날 교직생활을 했던 추억이 깃든 고장”이라고 회고했다. 또한 김 작가는 “담양 동 초등학교 근무하면서 광주일보 전신 옛 전남매일 신춘문에 동화가 당선돼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며 “무엇보다 가사문학의 맥을 잇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담양군에서 주는 상을 받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먼저 대상에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어떤 동화인가?
▲ '추성관에서'를 썼던 지난 여름은 유

난히 더웠어요. 그 더위 속에서 저는 글 속의 주인공들을 만났지요. 담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판을 두드리는 일이 임진왜란 때 목숨 바쳐 싸웠던 우리 조상들의 거룩함과 비교가 될 수 없겠지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 시대 어린이들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의병들의 삶을 공감하고 그들의 열을 체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양정 송순에 대한 문학에도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 그분의 자연친화적인 삶, 자연과 벗삼아 살았던 삶에 많이 공감했지요. 대표작인 '면양정'도 근대에 가사동화를 접하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장편동화로 형상화 한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구상을 했던 것 같다.
▲ 작품을 쓴 것은 올해 공모 기사가 뜬 직후부터 썼어요. 대략 서너 달 정도 몰두해서 쓴 셈입니다. 담양은 젊은 날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터라 늘 그리운 고장입니다. 아이들 셋을 모두 담양에서 낳았으니까요(웃음).

—모티브를 얻게 된 계기는?
▲ 그동안 내 고향 강진 이야기를 쓰곤 했는데 이번에 담양 이야기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양 동 초등학교를 알고는 동화로 써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지요. '추성관'은 호남의병들이 싸우러 나가기 전에 맹세를 했던 곳이라, 작가라면 한번 정도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싶을

거예요.
—문학의 장르 중에서 특별히 동화를 쓰게 된 이유는?
▲ 동화는 아동문학과 아동문학은 동심이 바탕을 이루죠. 아무래도 제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심들과 접할 수 있었고 그런 환경 때문에 동화에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1979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당선 이후 좋은 작품을 많이 퍼냈다. 동화를 쓰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 문학의 모든 장르가 그렇듯이 우선 많이 읽어보고, 써보고 또 상상력을 키워나 가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개성적인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목포 출신 김보광씨 '오해하지 않는 연습...' 펴내

“내가 잘하면 좋아해주겠지”라는 기대는 갖지 않는 게 좋다. 우리가 자신의 관점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 '잘하려고 애쓴다'고 생각한다 해서 상대방도 반드시 그렇게 봐주는 건 아니다. 우리가 애써도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이 애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하므로 고마워하거나 보상하지 않을 테니 그때는 그 사람도 우리에게서 상처받았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라.” (본문 중에서)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되거나 단절된다. 자신을 먼저 올바르게 파악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심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사람의 기질과 성격은 관계 속에서 부대끼고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 발현된다.

목포 출신 김보광 씨가 최근에 펴낸 '오해하지 않는 연습, 오해받지 않을 권리' (웨이북)는 관계의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상처 치유 공부를 통해 '남편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해하게 됐으며, 관계 개선에 필요한 지혜를 사람들과 공유한다. '기질'과 '애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타인의 마음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저자 이력이 특이하다. 자상하지만 가장장적인 아버지 아래서 순종적인 아이로 성장했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해 그 현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정반대의 성향을 지닌 남편과의 결혼생활과 인간의 욕구에 대한 탐구식이 심리에 관심을 갖게 했다.

저자의 불교 입문 계기도 흥미롭다. 성철 스님의 열반을 계기로 불교에 입문해 이듬해 당시 종정인 혜암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 시골로 내려갔다. 이후 16년간 참선에 정진하던 그녀는 남편과 상처 치유 공부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토대로 그 결과물 등을 책에 담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올 마지막 정기강좌 개설

리얼리티(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은 올해의 마지막 정기강좌를 개설했다. 3일부터 30일까지(오후 7시30분)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 (북구 자미로 66번길 7)에서 62기 강좌를 연다.

월요일에는 안정선 두루예술심리상담센터장이 '나의 삶 이해하기-심리 방어기제와 관련하여'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에는 이진 소설가가 '소설,

이론에서 실기까지'를 주제로, 수요일은 철학스터디 시간으로 명혜영 박사가 '몸으로서의 정신-베르그송 '물질과 기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목요일은 명혜영 박사와 신우진 씨가 '목독(십인십책)회 & 일상을 수다로'를 진행한다.

토요일(오후 2시)에는 '영화덕후'를 매개로 영화로 읽는 인문학이 진행된다. 문의 010-4624-1201, 010-9949-855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붕위의 막걸리

매주 수요일 밤 11시

